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우리 앞에 놓인 제약과 한계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삼일교회의 7가지 DNA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것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니다.

들어가며

<삼일의 7가지 DNA> 마지막 일곱 번째 주제는 ‘매이지 않는 인생을 살라’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성전 앞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며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소요는 고발로 이어지고, 바울은 이리저리 끌려 다니며 계속되는 심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가이사 황제의 판결을 받기 위해 제국의 중심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1. 복음에만 매인 삶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일반적인 감옥이 아닌 가택에서 감시병과 지낼 수 있는 호의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먼저 로마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자신의 상황을 변호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로부터 더 듣기를 원하였고, 바울은 약속을 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재판관 앞에 두고 있는 피고의 신분이며, 감시병에게 매여 있는 죄수의 몸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로마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심문과 죽음의 위협을 거쳐 와야 했습니다. 그의 몸도 마음도 분명 너털너털 해져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을 그의 집으로 초대하여, 복음의 환대를 베풀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몸과 상황은 물리적으로 매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매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였을까요? 단 하나로 밖에 설명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에 대한 증언에 완전히 매여 있었습니다. 그의 동족과 이방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어떤 것도 그를 묶어두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삼일의 DNA란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사도행전은 로마에서 바울의 행적을 짧게 요약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만 2년 동안 바울은 감시를 받으며 셋방살이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환영하여 맞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다소 의아하게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이후 바울에게 일어난 이야기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독자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마지막까지 남긴 것이 있다면 셋방에서도 거침없이 전파되는 복음뿐입니다.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어 제국의 심장 부에서 전파되는 복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계속하여 전파되는 구원의 복음만이 남아 있을 따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였고, 기적이라 불리는 여러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사연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수렴합니다. 이것은 일곱 번에 걸쳐 ‘삼일의 DNA’에 대해서 생각해 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우리 교회가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하여 전수해야 할 DNA는 삼일이라는 이름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일이라는 이름과 명성은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남게 되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